

<마가복음 9장 개요> 신앙고백 후에는 **제자훈련에 집중된다!**

*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, 분기점은 베드로의 신앙고백(주는 그리스도)이다. 마가복음 3장 2) - 나) 편을 보라.

첫째부분(막 1-8:26)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다. **침묵명령**이 주로 나온다.

둘째부분(막 8:27-16)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며,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.
 ==> 자신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, 더 근본적인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다.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거듭 강조하신다.

1) 1-13 예수님의 완전한 변화(Transformation) 사건

2절 ...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... 변형되사 *높은 산: 헬몬산 / *변형: 신적존재로서의 완전한 변형

가) 목적: 인자의 고난에 대한 선언은 고민과 의심에 싸여 있었을 제자들에게 에수를 메시아로 확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.

나) 모세와 엘리야: 모세(신18:18)와 엘리야(말3:1)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,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다. 이들이 변화된 예수께 나타난 것은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준다.

다) 하나님의 음성: “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” => 제자훈련 사역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개입

2) 14-29 귀신 들린 소년 치유를 통한 제자훈련

가) 일반 치유 사건과는 다르다: 예수의 기적에 앞서 제자들의 실패와 기적에 뒤이어 제자들이 실패 원인에 대한 질문도 있다.

나) 예수님의 책망: “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” *결국 원인은 믿음의 문제이다.

다) 기도가 답이다: 이는 단지 문자 그대로의 기도만이 아니라, 제자들이 하나님 만을 온전히 의지했는지, 의지하지 않았는지의 문제이다. 제자들은 귀신을 내 쫓는 권한을 받았고, 경험도 있었지만,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다.

3) 30-37 수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와 ‘누가 크냐?’에 관한 논쟁

예수는 자신의 수난에 대해 다시 예고하신다.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. 이것은 두 번째 수난 예고에 뒤어서 소개되는 ‘누가 크냐’에 관한 그들의 논쟁에서 곧 바로 드러난다. 제자들은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.

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를 **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갖는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 설명**하신다. 제자는 자신이 높아 지려고 하기 보다, 사회적 약자들을 영접하고, 섬기는 사람들이다.

4) 38-41 제자들의 특권의식을 경고하심

38절 ...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**주의 이름으로**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

*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이라면, 꼭 내 편이 아니더라도 금하지 말라고 명하신다. **제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폐쇄적이어서는 안되고,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**을 제시해 준다.

5) 42-50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심

***소자:** 세상적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소중한 존재들일 수 있음을 알려 주신다.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다.

***범죄의 결과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**,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(손, 발, 눈)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신다. 물론 문학적인 과장법이 적용되었다.

==> **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.**